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「3년 이상 가입한 증권펀드」에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

□ 정부는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안정 및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“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”을 추진하고 있음.

- 장기주식형펀드(적립식)에 3년 이상 가입한 불입금액의 일정비율(분기별 300만원, 연간 1,200만원 한도)을 소득공제 및 배당 소득을 비과세로 처리
- 거치식 장기회사채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3,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적용
- 적용대상으로는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, 펀드자산의 60%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이며, 장기회사채 펀드는 펀드자산의 60% 이상을 국내 회사채·CP(국고채, 금융채 등은 제외)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에 한함.

□ 이미 가입된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절차를 통해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 이상 불입을 약정할 경우 동 세제혜택을 부여함.

- 현재 국내주식형펀드의 적립식계좌 수는 840만개이며, 금액은 약 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이번의 세제지원으로 국내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회사채 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.

□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은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발생분 부터 적용되며,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을 개정하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힘.

(「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」 추진,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, 10/19)